



영암 서킷에서는 F1 대회 뿐 아니라 국내 최고 모터스포츠와 이색 체험행사가 연중 계속된다. 사진은 국내 최대 프로 레이스 대회인 코리아스피드페스티벌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영암 서킷에서는 자동차와 함께 오토바이의 박진감 넘치는 질주도 계속된다. 사진은 코리아로드레이스 챔피언십에 참가한 선수들이 아찔하게 중심을 잡으며 경주장을 돌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자동차·오토바이·자전거 ... 영암서킷은 ‘연중 질주’

F1 비시즌에도 모터스포츠·체험 행사 풍성

슈퍼레이스 류시원 등 연예인 레이서 총출동

‘질주 본능’은 계속된다. F1은 ‘코리아그랑프리’(10월 12일~14일) 대회기간 뿐 아니라 1년 12달 색다른 볼 거리를 제공해준다. 정식 F1 대회가 열리지 않는 비시즌에도 영암 서킷에서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경주 등 다양한 국내 모터스포츠와 이색 체험행사가 풍성하게 열린다.

15일 막을 내린 ‘코리아스피드페스티벌’(KSF) 국내 최대 프로 레이스 대회다. 국내 최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하는 프로대회로 제네시스투레 19대, 포르테쿱 17대, 아반떼 22대 등 총 65대의 차량이 출전하여 시리즈 챔피언을 다툰다.

하반기에는 F1 국제대회가 끝나는 오는 9월 23일(4라운드), 10월 27일(5라운드)~28일(6라운드) KSF 대회가 영암 서킷에서 펼쳐진다. 제네시스투레 챔피언십에서는 골라이트 인디고팀의 오일기, 인제오토피아의 아오기, 아트라스 BX의 조항우가 최명길(솔라이트인디고) 등 인기 드라이버들이 총출동한다.

또 일반인이 직선도로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모터스포츠의 짜릿함을 만끽할 수 있는 ‘나도 레이서다’ 등 부대행사도 풍성하다.

KSF와 더불어 국내 2대 프로 레이스 대회

인 슈퍼레이스도 영암 서킷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경기다. 매 대회마다 경주뿐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가 많고 안재모, 류시원, 김진표, 이화선 등 유명 연예인 레이서들이 총출동하기 때문에 더욱 흥미를 더해준다. 각 팀이 부스를 공개하고, 전 클래스의 경주차, 드라이버, 레이싱모델들이 모두 나와 관람객들과 사진을 찍는 ‘피트워크 이벤트’ 등 잠시도 눈을 돌릴 수 없는 이색 행사가 많다.

또 카레이서가 운전하는 경주차에 동승해 서킷을 주행하는 절호의 기회인 ‘택시타임’도 운영되어 관람객의 호응을 이끌어낸다. 슈퍼레이스는 오는 11월 4일(7라운드) 영암 서킷을 장식한다.

한국 DDGT 챔피언십은 전 경기가 영암 서킷에서 열린다. 올해로 7번째 대회를 치르는 한국 DDGT 챔피언십에는 160여 대의 차량이 5개 종목 15개 클래스에 출전한다.

자동차 경주의 피겨로 알려진 ‘드리프트’(Drift), 스피릿(선착순) 방식으로 순위를 겨루는 ‘슈퍼 투어링(Super Touring 300, 200, 100)’ ‘그랜드 투어링(Grand Touring 500, 300)’ 종목을 통해 짜릿한 스피드를 선사한다.

또 한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순위

를 정하는 ‘타임트라이얼(Time Trial 500, 300, 200, 100)’, 목표 기록을 달성하는 ‘타임 챌린지(Time Challenge)’ 등 5개 종목 15개 클래스가 화려한 묘기 쇼를 펼쳐진다.

한국 DDGT 챔피언십은 오는 8월 26일(5라운드), 9월 16일(6라운드), 10월 21일(7라운드) 열릴 예정이다.

오는 22일 4라운드 경기가 열리는 넥센타이어 스피드 레이싱도 빼놓을 수 없는 경주다. 매 대회마다 레이싱 모델의 다채로운 공연과 포토타임, 닌지게임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열고 있어 일반 관람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대회다. 9월 9일(5라운드)과 11월 18일(6라운드)에도 경주가 계속된다.

영암 서킷에서는 자동차만 달리는 것이 아니다. 이곳에서 열리는 KMF 코리아로드레이스 챔피언십은 국내 최고의 오토바이 대회다. 경주장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달려 주행시간을 겨루는 경기로, 모터사이클에 대해 중 가장 박진감 있다.

이 대회에는 대표적인 로드레이스 경기인 SB1000(1,000cc), ST600(600cc), 250(250cc) 클래스에 46명, 오프로드 모터사이클에 로드 레이싱용 휠과 타이어를 장착한 슈퍼모타드 A, B 클래스에 22명 등 총 68명의 모터사이클 라이더가 참여한다. 또 국내 최고의 전문 라이더가 운전하는 모터사이클에 동승해 서킷을 주행할 수 있고, 일반인 체험 주행 등도 결합된다. 오는 8월 12일(3라운드)과 11월 11일(4라운드)에 경주가 계속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코리아스피드 페스티벌

라운드	개최일	개최장소
4	9월 23일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 서킷
5	10월 27일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 서킷
6	10월 28일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 서킷

■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라운드	개최일	개최장소
7	11월 4일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 서킷

■ DDGT 챔피언십

라운드	개최일	개최장소
5	8월 26일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 서킷
6	9월 16일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 서킷
7	10월 21일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 서킷

■ 넥센타이어 스피드 레이싱

라운드	개최일	개최장소
5	9월 9일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 서킷
6	11월 18일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 서킷

■ KMF 챔피언십

라운드	개최일	개최장소
3	8월 12일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 서킷
4	11월 11일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 서킷

■ 트랙데이

라운드	개최일	개최장소
4	7월 28~29일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 서킷
5	8월 4~5일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 서킷
6	11월 24~25일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 서킷



“F1 레이서처럼 무한질주 해보세요”

일반인들 체험 ‘트랙데이’

참가 신청하면 주행 가능

보는 것 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팬들을 위해 영암 서킷에서는 일반인 체험 행사도 마련한다.

일정 시간 교육을 받으면 일반인들이 자신의 차량으로 프로 선수처럼 서킷을 무한질주를 할 수 있는 트랙데이를 열고 있다.

트랙데이는 참가 신청을 한 후 스포츠주행권을 구입하고,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라이선스는 주행 당일 라이선스 비용을 납부하고 교육을 받으면 되

며, 한 번 취득한 라이선스는 1년간 유효하다.

참가자는 헬멧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엔진오일, 브레이크패드, 타이어 마모도 및 공기압 등을 사전에 점검받아야 한다.

주행비용은 선수용 10만원, 일반인 6만원, 스포츠주행권(1회 25분 기준)은 3만5000원. 동호인 등 10인 이상 참여하며 트랙데이와 별도로 수시 스포츠주행이 가능하다.

트랙데이는 오는 28~29일, 8월 4일~5일, 11월 24~25일 계속된다. 문의 061-288-4206~7.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전적이나 덤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시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옥상, 외벽 시공사진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프리모남녀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50만원~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 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상가 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 장 이 수 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검색

백미트
나주방향
500m
SK주유소
구대교
대산프리모가발